

음악으로 나를 표현하고 취향 나누다

문화공관장 작당, 14-15일 IT'S ME: 리스닝 큐레이션 팝업 in 작당' 운영

전주남부시장 내 복합문화공간인 '문화공관장 작당'은 오는 14일과 15일 이틀간 2026년 하반기 기획 프로그램인 IT'S ME: 리스닝 큐레이션 팝업 in 작당'을 개최한다.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분야의 큐레이터들이 직접 선정한 플레이리스트를 통해 자신을 소개하고, 음악을 매개로 서로의 취향과 이야기를 나누는 참여형 팝업 형식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큐레이터별 플레이리스트를 감상하는 '리스닝 큐레이션' △사진 작품과 음악을 연결한 '사진X음악 전시' △DJ의 선곡과 믹스를 현장에서 즐기는 'DJ 라이브 큐레이션' △관람객이 추천곡을 공유하는 '참여형 플레이리스트'로 구성된다.

프로그램은 이틀간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첫날에는 리스닝 큐레이션과 사진X음악 전시, 참여형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또 둘째 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DJ 캐쉬트레이(Cashtray)와 싱글렉(SingleLeg)의 라이브 큐레이션이 진행된다.

이성순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음악을 통하여 자신과 타인의 취향을 발견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면서 "시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음악을 경험하며 자신만의 취향을 확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IT'S ME: 리스닝 큐레이션 팝업 in 작당 포스터

조선 명장 '무민공 황진 장군' 숭고한 충절 기려

남원시, 제향 봉행 거행

남원시에 따르면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명장인 무민공(武愍公) 황진 장군의 숭고한 충절을 기리는 제향 행사를 장수황씨 후손과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일 거행되었다.

이번 제향은 임진왜란 최전선에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황진 장군의 호국 정신을 기리고, 그간의 역사적 공헌을 후세에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 마련, 황진 장군(1550~1593)은 임진왜란 당시 웅치·이치 전투 등에서 적은 병력으로 왜군을 대파하며 전라도 방어를 결정적인 공을 세운 조선의 대표적인 구국 영웅이다.

특히 당시 '바다에는 이순신, 육지에는 황진'이라 불릴 만큼 그 용맹과 인품을 높이 평가받았으며, 이치·웅치 전투는 임진왜란 초기 육상에서 거둔 대승으로 평가, 장군은 이후 제2차 진주성 전투에서 끝까지 항전하다 순국하였다.

이날 행사는 초헌관의 분향을 시작으로 아헌관, 종헌관의 제배와 축문 독 외기 등의 순으로 전통 제례 절차에 따라 경건하게 진행, 참석자들은 장군의 넋을 위로하며 위국헌신의 정신을 기렸다.



남원시에 따르면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명장인 무민공(武愍公) 황진 장군의 숭고한 충절을 기리는 제향 행사를 장수황씨 후손과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일 거행되었다.

양충모 남원시장은 "이번 제향을 통해 장군의 역사적 가치가 널리 알려지고 후세에 귀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통합문화이용권으로 '군산 국가유산 야행' 즐겨요... 임시 가맹점 운영

군산시는 '2026 군산 국가유산 야행' 기간 동안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임시 가맹점을 운영한다.

"2026 군산 국가유산 야행"은 오는 14일부터 16일,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총 5일간 구 조선식량영단과 군산 원도심 국가유산 일원에서 펼쳐진다.

시는 축제 현장에 임시 가맹점을 운영해 시민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문화복지 바우처 카드이다.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 분야 및 유선방송 등 다양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연간 15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번 축제 기간에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을 소지한 방문객은 축제장 내 50여 개 먹거리, 체험·판매 부스 등의 임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군산=김민호 기자

5만원으로 6박 7일 완주서 살아보기

완주 정주체험 관광 프로그램 '살아보니, 완주' 참가자 모집

완주문화관광재단(이사장 유희태)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완주군과 함께 추진하는 2026 완주 정주체험 관광 프로그램 '살아보니, 완주'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타 지역 거주자가 6박 7일 동안 완주에 머물며 지역의 생활환경과 공동체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귀농·귀촌과 정주 가능성을 탐색하는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이다. 관광지를 둘러보는 여행을 넘어 실제 지역에서 살아보며 완주의 삶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프로그램은 총 3회 운영되며 △1회차는 9월 3일부터 9일까지 △2회차는 10월 1일부터 7일까지 △3회차는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모집 대상은 완주에서의 생활과 정주에 관심 있는 타 지역 거주자로, 청년과 신혼부부, 자녀 동반 가족, 귀농·귀촌 희망자, 창업 준비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완주의 일상을 직접 경험하는 '살아보기' △지역 명소와 축제를 둘러보는 '로컬투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교류' △주거·일자리·복지 정책을 알아보는 '정책투어' △자연과 농촌을 경험하는 '농촌체험' 등에 참여하며, 완주의 생활환경과 지역문화를 폭넓게 체험하게 된다.



참가비는 1인당 5만 원으로 숙박비와 체험비, 투어 및 프로그램 참가비가 포함된다. 회차별 8명 내외를 모집하며, 서류심사와 필요 시 온라인 인터뷰를 거쳐 최종 참가자를 선발한다.

1회차 참가 신청은 8월 5일부터 19일까지, 2·3회차는 8월 31일부터 9월 23일까지 접수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공식 홍보물의 QR코드를 통해 네이버폼으로 신청하면 된다.

/완주=염재복 기자

군산형 가족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함께 자라는 시간' 운영

(재)군산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 생활밀착형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가까호호(家々好々)'의 일환으로, 군산시가족센터와 연계하여 군산형 가족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함께 자라는 시간' 참여자를 모집한다.

'함께 자라는 시간'은 영유아 자녀와 부모가 서로에게 느끼는 감정을 색(色)을 비롯한 예술매체로 자유롭게 표현하고 신체·감각적 소통을 나누며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한층 깊게 강화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군산시가족센터의 전문성을 더해, 프로그램은 자녀 연령별 발달 단계에 맞춘 2개 맞춤형 과정으로 구성·운영된다.

24개월 이상 영아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상상놀이터'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운영한다. 총 7가정을 모집하며, '색깔놀이', '바람을 만나요', '손끝 탐험대' 등 감각 중심의 예술 놀이 활동으로 구성된다. 4~6세 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감각놀이터'는 매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운영한다. 역시 7가정을 모집하며, '우리 가족의 색 이야기', '몸으로 표현하는 우리' 등



다채로운 미술·신체 표현 활동을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본 사업은 9월 2일부터 10월 21일까지 총 7주간 군산시가족센터 2층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진행된다. 참여 신청은 10월부터 27일까지 군산시가족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군산=김민호 기자

전북의 유산

국내 최대의 고대 저수지

김제 벽골제



**김제 벽골제에 조성된 쌍룡 조형물. (김제시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

국내 최대의 고대 저수지인 사적 제111호 벽골제는 김제시 부량면 신흥리에서 신흥리에 걸친 약 3km에 이르는 제방(무 개)의 수문 장제지와 장제지 포함과 1415년 건립된 벽골제 중수비를 포함하여 1963년 1월 21일에 국가사적 제111호로 지정·판정되고 있다.

국가사적 벽골제와 그 배경인 김제만경읍의 문화사적 의미를 조영하기 위해 김제시는 1975년 벽골제 부분발굴을 필두로 1980년 유적정화공사, 1990년 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추진을 통해 과거와 미래를 연결할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했다.

현 벽골제단지에는 벽골제와 농경문화를 대우제로 전시 및 자료수집과 연구조사를 진행하는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김제를 발원지로 일제강점기를 다룬 소설 아리랑의 자료를 전시하는 아리랑박물관, 그리고 전북미술계의 거목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친 나상문선생의 벽점미술관과 농경사를 주제로 어린이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농경사주제관 및 체험관, 김제우도농악단 등 문화시설과 각종 야외전시로 구성돼 있다.

사적 벽골제와 각 박물관들은 오래된 고을, 김제의 지역정체성 및 문화를 대내외에 천명하는 문화공간이자 휴식공간의 역할을 수행하며 문화백년지대 김제를 표방하고 있다.

- 출처: 김제시청 홈페이지 -